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9卷(3), 2016, 12, pp. 1~30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학자금 대출과 노동시장 이행 성과;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배호중\* · 박건표\*\*

본 연구는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자금 대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참고자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자금 대출 실태를 살펴보고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이행성과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의 34.6%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1.3학기에 걸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3.83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학자금 대출의 평균 액수는 1,293만원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자금 대출경험이 있는 이들이 졸업 후 첫 직장을 빨리 구하기는 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첫 직장의 임금수준이나 직장의 전공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양상은 학자금 대출 기간(학기)이나 학자금 대출 총액에 따라서도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정치권에서의 논쟁 그리고 이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감에 비해 이를 둘러싼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학자금 대출의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주제어 : 학자금 대출, 첫 직장 임금, 노동시장 이행,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투고일: 2016년 04월 25일, 심사일: 05월 31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24일

\* 교신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baseball@kwdimail.re.kr)

\*\* 공동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geonpyo@kwdimail.re.kr)

## I. 서론

한국의 고등교육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유례없는 양적 확대를 경험하였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을 기준으로 25~34세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이 같은 한국사회의 고등교육 확대 경향을 트로우(Trow, 1974)의 고등교육 이행단계론에 비추어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 대학 진학률이 10% 미만 수준이던 '엘리트 교육' 단계에서 '대중 교육' 단계를 거쳐 50% 이상의 '보편 교육' 단계로의 이행이 불과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비용은 아직까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더불어 흔히 '스펙쌓기'로 지칭되는 각종 요건들(공모전 수상, 인턴십 경험,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을 갖추기 위한 부대비용들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위계서열 구조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위세 높은 대학의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된 경우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진학을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판단한 까닭에서인지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에 있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 각각 24%와 28%로 OECD 평균(각각 23%와 26%)을 살짝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국민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34% 수준으로 OECD 평균(4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특히 한국의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90.9%로 OECD 평균(78.5%)보다 12.4%p 높고,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은 9.1%로 OECD 평균(21.5%)보다 12.4%p 낮아(한국교육개발원,

2014) 고등교육에서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액과 수혜인원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연간 2.5조 가량의 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미래소득연동 학자금 용자제도(income-contingent loan, ICL)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든든학자금)」가 도입되어 이에 대한 학자금 대출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각각 19,205억원과 8,456억원이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액수는 해를 거듭하면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이를 대신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액수는 각각 16,386억원과 7,831억원으로 집계되었다(한국장학재단,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가계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높은 등록금 인상률에 따른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자금 지원 문제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양정승 외, 2013). 이처럼 높아진 사회적 관심 속에 학자금 대출이 학업능력과 의지를 가진 학생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노동시장 이행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 양극화 완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에 따른 초기 노동시장 이행 성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기간, ② 첫 직장의 임금수준, ③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를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설정하여 학자금 대출 경

1) 한국의 경우 남학생들은 군복무로 인해 대학재학기간 등에 구조적 차이가 생기고 대학입학 후 충분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남학생들은 여전히 재학 중에 있거나 졸업 후의 경과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지 않아 구직을 위한 기간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성별 취업성과 분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KEEP 10차년도 자료(대부분 만27세)를 기준으로 남학생 1,455명 중 16.1%에 달하는 234명이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남녀 모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 성별 취업성과에 구조적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험에 따라 이들 성과 지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후 III, IV장에서는 분석자료에 대한 소개와 기초통계 및 각종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V장에서는 결론으로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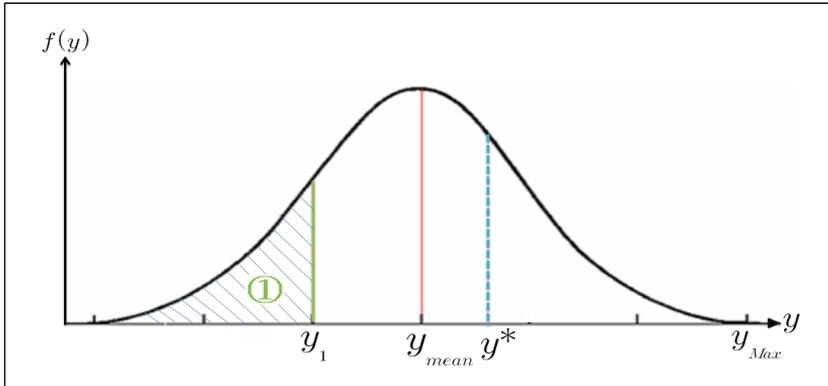
### 1. 이론적 논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성과차이와 관련해서 노동공급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 중 일자리 탐색이론(job-searching theory)을 논의의 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일자리 탐색이론(job-searching theory)은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취업과 미취업의 현상을 구직 및 구인 활동에서 취업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접근법이며,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징인 일자리 탐색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미취업 상태의 장기화, 더불어 잦은 직장 이동의 결과 취업 및 미취업 상태가 빈발하게 되는 현상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용성, 2012). 일자리 탐색이론의 핵심은 일자리 탐색에는 이익이 있고 동시에 비용도 발생하며, 따라서 구직자는 일자리 탐색에 투입한 시간, 노력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투입된 시간이나 노력 등에 비해 크다면 일자리 탐색을 계속한다는 것이다(조우현·황수경, 2016<sup>2)</sup>).

이를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f(y)$ 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분포이며, 이는  $k$ 수준의 기술을 가진 근로자에게 제시되는 임금의 분포가 된다. 곡선의 아래 면적은 확률을 나타내며 전체 면적의 합은 1(=100%)이 된다.  $F(y_1)$ 은 노동시장에서 제시되는  $y_1$  왼쪽의 임금분포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며(=①부분) 제시되는 임금수준이  $y_1$ 보다 작을 확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1 - F(y_1)$ 은 제시되는 임금수준이  $y_1$ 보다 높을 가능성을 뜻한다.

2) 일자리 탐색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우현·황수경(2016) pp. 412~438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론적 논의부분은 조우현·황수경(2016) pp. 412~418에서 발췌 및 요약하였다.

[그림 1] 노동시장에서 제시되는 임금분포, 의중임금과 취업확률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구직자는 일자리 탐색의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기업이  $y_1$ 의 임금으로 일자리를 제시할 확률이  $\lambda$ 라고 하면 구직자가 일자리 더 탐색할 경우 그가 얻을 수 있는 임금은  $y_1$ 와  $y_{Max}$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직자가 일자리 탐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살펴보면 “일자리 탐색의 기대이익=더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sup>3)</sup>×보다 높은 임금의 기대값<sup>4)</sup>”이 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일자리 탐색의 기대이익= $\lambda(1 - F(y_1)) \times E(y | y > y_1)$ ”가 된다.

이어 일자리 탐색의 한계기대이익을 살펴보면 한계기대이익은 일자리 탐색의 기대이익에서 첫 탐색의 이익인 임금( $y_1$ )을 차감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자리 탐색의 한계이익= $\lambda(1 - F(y_1)) \times (E(y | y > y_1) - y_1)$ ”이 된다. 이와 같은 일자리 한계이익과 탐색의 한계비용(시간, 노력, 교통비 등)을 비교하여 구직자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논리로부터 보다 복잡한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의 과정<sup>5)</sup>을 거치면 탐색비용, 일자리 제의 도달률( $\lambda$ )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의중임금이나 미취업기간이 어떻게 변화할지 유추해 낼 수 있게 된다. 각 요인들로 편미분

3) 구직자에게 제시되는 임금수준이  $y_1$ 보다 높을 가능성인  $1 - F(y_1)$ 에 기업이  $y_1$ 의 임금으로 일자리를 제시할 확률인  $\lambda$ 를 곱한  $\lambda(1 - F(y_1))$ 가 노동시장에서  $y_1$ 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된다.

4) 임금이  $y_1$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일자리 탐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조건부 기대값인  $E(y | y > y_1)$ 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이에 대해서는 김용성(2012) pp. 75~76 및 조우현·황수경(2016) pp. 423~429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을 통한 탄력성 도출 결과에서는 탐색비용이 감소할수록 의증임금이 증가하며, 일자리 제의 도달률이 증가할수록 의증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를 학자금 대출과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일자리 탐색비용이 높을 것이며, 반대로 그들의 의증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구직기간은 짧고 실제 임금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했다. 오랫동안 학자금 부담은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학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학자금 지원 실태나 영향에 대한 학문적 또는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연구자가 접근할 만한 고등교육 실증 데이터 기반이 취약한 국내 현실 또한 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실증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했다(김안나·김성훈, 2010; 신혜숙·최정윤,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국내의 실증 연구들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였다.

김영식·주현준·김경선(2012)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7차년도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생 805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자금 대출은 대졸자의 취업확률 및 임금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고등교육이 일반화·보편화 된 상황 하에서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고등교육 결과의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장학금 확대 및 등록금 조정과 같은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필남·김경년(2012)은 「2007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재학 시 학비조달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에 주로 의존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첫 직장 이행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구직기간과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 그리고 첫 직장 임금의 측면으로 나누어 학자금 대출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학자금 대

출 의존자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월평균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보다 빨리 취업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직면하는 신용제약을 완화하여 고등교육 이수의 편의를 제공하기는 하나 노동시장 이행 초기에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므로 수직적 형평성 목적을 달성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양정승 외(2013)는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여부에 따른 학습시간, 수업태도, 경제적 휴학 경험, 희망직업 계획 등의 대학생생활과 학점, 영어성적과 같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학졸업 후 초기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자금 지원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학자금 대출여부가 학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학 재학기간 동안 경제적 사유로 인한 휴학을 경험할 확률이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성적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 사유로 휴학 또는 근로시간 증가라는 선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사교육비지출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인적자본투자가 부족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서 불리한 조건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해당연구에서는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경험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 대출금 또는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양질의 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찬영(2014)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7차년도 보정패널 자료의 남자 대출자 419명에 대한 자료를 통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노동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자금 대출 여부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은 취업확률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질의 일자리(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획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선택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로짓분석에서는 학자금 대출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약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편의를 고려한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서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약 11~12%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나 지원제도에 따른 노동시장이행 과정에서의 영향과 관련한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Woodworth, Chang and Helmer(2001)는 의대생

들을 대상으로 부채가 그들의 직업과 직결되는 전공선택에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채가 많은 의대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랜 수련을 요하는 외과 전문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고 1차 의료기관(primary care)의 개업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icozzi(2005)는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대학생의 경우 높은 이자율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미래의 소득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높은 임금수준을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1987 Natio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urvey(NPSAS(87)) 자료의 남성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액에 따른 취업가능성, 졸업 후 1년 시점의 임금, 졸업 후 1년 및 5년 시점에서의 임금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학자금 대출액이 많은 경우 초기의 임금수준이 높은 직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낮은 수준의 임금상승을 기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 \$5,000에서 \$10,000으로 늘어날 경우 최초 임금수준은 8% 가량 높은 직장을 선택하였으나 4년간의 임금상승률은 5%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eld(2009)는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배정되는 학자금 대출(지원) 프로그램에 그들의 미래 직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위험기피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비용-편익(졸업에 필요한 비용 vs. 미래 기대수익) 평활화(smoothing)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위험기피자의 경우 재학 중 납부할 학비도 적고 대출상환에 있어서도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s)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법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민사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학 중 low cost & 졸업 후 low benefit' 분야인 공익법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Rothstein and Rouse(2011)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정책이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학자금 지원 정책의 기조가 학자금 대출 중심에서 장학금으로 옮겨 간 1995년~2002년 사이의 대학입학자들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 장학정책의 기조의 변화에 따른 취업선호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자연실험 상황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학자금 지원 정책의 기조가 장학금 중심으로 변화된 후 비영리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III.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분석

#### 1. 분석 자료

학자금 대출이 대학 재학기간 및 노동시장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를 이용하였다. KEEP은 2004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씩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구와 재학 중인 학교(담임, 학교행정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학생의 가족 구성원과 그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실태, 교육효과,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본고에서는 KEEP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1차~10차년도(2004년~2013년) 자료를 가지고 대학재학 중 학자금 대출에 따른 대학생활 및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이질적인 대학 특성 차이로 인한 편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2~3년제 전문대학 진학자를 배제하였으며 편입을 경험한 경우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진학자들 가운데 남학생의 경우 다수가 대학 재학 중 군복무를 경험하게 되어 여학생과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남학생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에 따른 대학생활 및 초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2. 변수 구성 및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살펴보고자 한 대학졸업 후 첫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과 관련한

변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 연구에서는 초기 노동시장이행과정에서의 성과를 ① 대학 졸업 후 직장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 ② 로그 첫 직장 임금과 더불어 ③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학자금 대출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그간 이루어진 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개인특성 및 가구배경, 출신 고교의 유형, 졸업한 대학의 특성 및 전공 그리고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과 같은 대학 재학 중의 취업준비 경험에 관한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배경특성과 관련하여 투입된 변수들은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포함하여 출신고교 및 대학 특성,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와 관련한 경험 그리고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몇몇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학력은 연단위로 환산한 부모의 학력 평균을 투입하였으며 가구소득은 고교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에 자연 로그를 취하여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중에는 농어촌출신 대학생を対象으로 한 별도의 학자금 대출이 존재한다. 따라서 출신지역별로도 학자금 대출이용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지역(특별시, 광역시, 시)과 농어촌지역(읍, 면)으로 나누어 변수를 생성하였는데 KEEP의 경우 가구의 소재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고등학교의 소재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구근처의 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판단하여 출신고교의 소재지를 출신지역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진학한 대학의 순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수의 기관에서 매년 대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KEEP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한 2005년의 중앙일보 대학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4개의 집단(1~10위, 11~20위, 21~30위, 기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중앙일보 대학평가, 2016). 아울러 세부전공을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0위권 이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전공은 7개의 대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변수(dummy variable)로 구성하였으며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상당수 언급된 요소인 재학 중 자격증 취득경험,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해외연수 경험, 재학 중 근로 경험에 대해서 각각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하는 가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학자금 대출 여부를 비롯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 학기 수, 재학 중 받은 학자금 대출의 총액(분석에서는 자연로그 형

태를 취해서 이용) 등의 변수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생성한 변수들의 기초통계값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KEEP에 나타난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이전 5개월 이내(=마지막 학기 시작 이후)의 시점부터 얻은 일자리(아르바이트 제외)를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로 판단하였으며 졸업일 이전 5개월~졸업일 사이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을 0개월로 계산하였다. 첫 직장의 임금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실질화시켜 분석에 이용하였다.

우선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분석에 이용된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는데 6.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첫 직장에서의 월급은 평균 136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주관적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한 첫 일자리의 전공 일치도는 5점 만점에 3.3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평균학력은 11.98년으로 평균적으로 고졸수준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비율은 94.8%였다. 81.9%는 인문계 고교 출신이었으며 14.0%는 재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사회계열이 30.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이어 예체능계열(16.8%), 자연계열(16.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 43.4%는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는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있었다. 19.4%는 대학 재학 중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84.7%는 대학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의 34.6%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1.3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4.6%(160명)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3.83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이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의 평균 액수는 1,293만원에 달했다.

&lt;표 1&gt;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 대상)

구분	성격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범주형 자료: 빈도, %)	
종속변수	노동시장 성과 (N=404)	구직기간	대학 졸업 후 구직기간(개월)	6.428	10.205
		로그 첫 임금	로그 첫 직장 임금	4.785	0.499
		첫 직장 평균임금	첫 직장의 월평균 임금수준(만원)	135.70	108.01
		전공 일치도	5점 척도로 추정된 전공 일치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3.345	1.155
독립변수	개인 및 가구특성	부모학력(년)	부모학력의 평균(년)	11.977	2.398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 유무	439 (94.8%)	
		자가주택 소유	고3 당시 자가주택소유여부(자가=1)	344 (74.3%)	
		로그 가구소득	고3 당시 로그 가구소득	5.621	0.536
	출신고교 특성	고교소재지	고교소재지(광역시/시=1, 기타=0)	388 (83.8%)	
		인문계 고교 출신	출신고교 유형(인문계=1, 전문계=0)	379 (81.9%)	
		재수경험 여부	대학입학 당시 재수경험(재수=1)	65 (14.0%)	
	출신대학 특성	대학순위: 1~10위	대학순위: 1~10위	26 (5.6%)	
		대학순위: 11~20위	대학순위: 11~20위	29 (6.3%)	
		대학순위: 21~30위	대학순위: 21~30위	49 (10.6%)	
		대학순위: 기타	대학순위: 기타	359 (77.5%)	
		전공1: 인문	전공1: 인문계열	67 (14.5%)	
		전공2: 사회	전공2: 사회계열	140 (30.2%)	
		전공3: 교육	전공3: 교육계열	37 (8.0%)	
		전공4: 자연	전공4: 자연계열	45 (9.7%)	
		전공5: 의약	전공5: 의약계열	20 (4.3%)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 경험	재학 중 자격증 취득 경험	201 (43.4%)	
		공무원 준비 경험	재학 중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92 (19.9%)	
		해외연수 경험	재학 중 해외연수 경험	90 (19.4%)	
근로 경험		재학 중 근로 경험	392 (84.7%)		
학자금 대출 (전체기준)	대출 경험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160 (34.6%)		
	대출 받은 학기 수	학자금 대출 받은 총 학기 수	1.324	2.212	
	log(대출 총액)	log(학자금 대출 총액)	2.379	3.311	
학자금 대출 경험자 기준 (N=160)	대출 받은 학기 수	학자금 대출 받은 총 학기 수	3.831	2.135	
	log(대출 총액)	log(학자금 대출 총액)	6.885	0.802	
	학자금 대출 총액(만원)	학자금 대출 총액(만원)	1292.60	917.696	

N=463

### 3.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성과 차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대출을 받지 않은 이들에 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원금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일자리 탐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이들의 의증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구직기간은 짧고 실제 임금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취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경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첫 직장 이행 기간, 첫 직장의 임금수준 그리고 전공 일치도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 경험에 따른 첫 직장 이행 기간(구직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 경험이 없는 이들의 경우 첫 직장을 구하는데 평균 6.9개월이 소요되었지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평균 5.5개월이 소요되어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이들의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어 첫 직장 임금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이들의 첫 직장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도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이들의 전공 일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앞서 일자리 탐색이론을 통한 논의에서와 같이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이들의 의증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구직기간은 짧고 실제 임금수준은 낮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성과 차이

	대출 경험 없음	대출 경험 있음	검정통계량(t 값)
첫 직장 이행 기간(개월) (표준편차)	6.907 (10.848)	5.592 (8.944)	1.25
로그 첫 직장 임금 (표준편차)	4.832 (0.468)	4.704 (0.541)	2.49**
첫 직장 전공 일치도 (표준편차)	3.432 (1.140)	3.195 (1.172)	1.97**
N	257	147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IV.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성과 차이 분석

### 1. 학자금 대출에 따른 졸업 후 첫 직장 이행 기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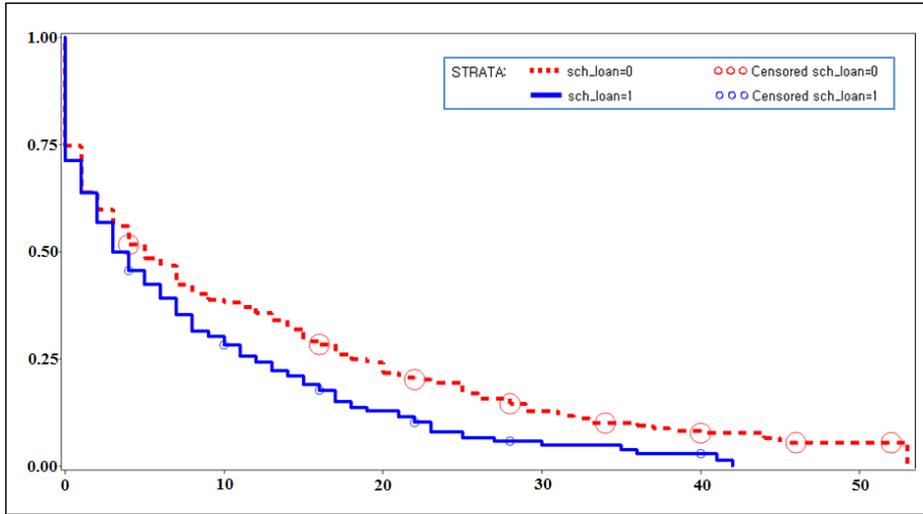
여기서는 우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과정과 관련된 성과차이 분석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학자금 대출 여부에 따라 대학졸업 후 첫 직장 이행까지의 기간(구직기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졸업 후 첫 직장을 갖기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기간에 대한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통계적 기법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먼저 Kaplan-Meier 방법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경험(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집단 對 그렇지 않은 집단)에 따른 계층(strata)으로 나누어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이행(취업)까지의 기간을 살펴본 후, 콕스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였다.

먼저 학자금 대출 여부에 따른 첫 직장 이행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는 학자금 대출 경험에 따라 졸업 후 첫 직장으로서의 이행 기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Kaplan-Meier Curve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Kaplan-Meier 방법은 관찰된 생존 시간을 크기순으로 순서대로 나열하여 계산되며, 사건(event)이 관측(취업한 경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 시점마다 생존 확률을 산출한다. 여기서는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기간이 생존기간이 된다. 월 단위로 환산한 기간을 활용하였으며 우측절단된(censored) 유형의 경우(조사 시점까지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중도절단된 것으로 간주) 변수를 0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로 처리하였다.

[그림 2]의 세로축은 생존확률(즉,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을 의미하고, 가로축은 미취업 기간(월)을 의미한다.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집단(실선)이 그렇지 않은 경우(점선)에 비해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전반적으로 짧은 것(=구직기간이 짧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시각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살피기 위한 Log-Rank test 결과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chi^2=8.41$ ).

[그림 2] 학자금 대출 여부에 따른 첫 직장 이행 기간(Kaplan-Meier Curve)



대학졸업~취업(첫 직장 이행)이라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간격(time interval)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앞서 살펴본 Kaplan-Meier 방법은 각 계층(strata)별로 범주를 나누어 첫 직장 이행 기간에 대하여 단순 비교 정도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각 계층별 사건발생에 대한 시간간격 차이를 직관적으로 한 눈에 살펴보기에는 용이하지만 학자금 대출 경험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속성을 통제하고 ‘취업’이라는 사건발생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널리 쓰인다. 그렇지만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표본의 이탈 등으로 중도절단(censoring)이 발생한 경우에는(여기서는 계속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미취업상태로 표본에서 이탈한 경우) 해당 표본은 제외하고 분석이 이루어져 중도절단된 표본들은 배제된 분석결과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적용하여 살펴볼 경우 최종 조사시점까지 첫 일자리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우측절단된(right-censored) 표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치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저드 함수  $h(t)$ 는 사건( $T$ )이 특정시점( $t$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event)이 특정시점( $t$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상

태에 있다가 취업으로의 이행(탈출)을 하는 경우가 해저드에 해당하며 특정시점( $t$ )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조건부 순간탈출확률을 아래의 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게 된다(김재희, 2016).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leq t + \Delta t | T > t]}{\Delta t}$$

이는 또한 아래의 식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는데 사건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벡터를  $X$ 로, 회귀계수를  $\beta$ 로 두면 콕스비례 위험모형에서 관측시점( $t$ )에서의 해저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h(t) = h_0(t) \exp(X' \beta)$$

따라서 관측시점( $t$ )에서의 해저드는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의미하게 되고 (+)의 계수값은 '취업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높음(=구직기간이 짧음)'을, (-)의 계수값은 '취업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게 된다. 첫 직장 이행 기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앞서 변수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한 설명변수들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학자금 대출 여부를 포함시킨 [모형 I]과 학자금 대출 학기 수를 포함시킨 [모형 II] 그리고 자연로 그를 취한 형태의 학자금 대출 총액을 넣은 [모형 III]의 세 가지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분석에서는 '미취업상태→취업상태'로의 이행을 살펴본 것이므로 (+)의 계수값은 '취업으로 빨리 탈출(=구직기간이 짧음)'을, (-)의 계수값은 그 반대(취업으로의 탈출에 오랜 기간이 걸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의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 이행 기간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어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첫 직장 이행에 좀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문계 고교 출신의 경우 전문계 고교 출신자에 비해 빨리 첫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재학 중 자격증 취득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구직기간이 짧았다. 반면 대학재학 중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학졸업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우선 학자금 대출 경험 변수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빨리 첫 직장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Ⅱ>에서의 학자금 대출 기간 및 <모형Ⅲ>의 학자금 대출액 변수 또한 각각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값을 나타내어 학자금 대출기간이 길수록, 학자금 대출 총액이 많을수록 빨리 첫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모형 I (학자금 대출 여부 포함 모형)			모형 II (학자금 대출 기간 포함 모형)			모형 III (학자금 대출액 포함 모형)			
	$\beta$	S.E	$\chi^2$	$\beta$	S.E	$\chi^2$	$\beta$	S.E	$\chi^2$	
대학 중 제학 중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 경험	0.323***	0.103	9.835	0.322***	0.103	9.748	0.388***	0.103	10.781
	공무원 준비 경험	-0.325**	0.144	5.096	-0.323**	0.144	5.033	-0.331**	0.144	5.299
	해외연수 경험	0.110	0.141	0.611	0.108	0.141	0.589	0.100	0.141	0.509
	근로 경험	0.114	0.143	0.627	0.115	0.143	0.639	0.116	0.143	0.660
학자금 대출	대출 경험	0.245**	0.108	5.120	-	-	-	-	-	-
	대출 받은 학기 수	-	-	-	0.040***	0.016	6.519	-	-	-
	log(대출 총액)	-	-	-	-	-	-	0.072***	0.023	10.043
모형 검정 통계량	-2Log L	4412.648			4411.299			4408.296		
	AIC	4454.648			4453.299			4450.296		
	SBC	4539.293			4537.944			4534.941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Likelihood Ratio	45.6356***			46.9847***			49.9878***		
	Score	45.4757***			46.8967***			50.1778***		
	Wald	45.0086***			46.3826***			49.5869***		
N	463			463			463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 학자금 대출에 따른 첫 직장의 임금 분석

앞선 첫 직장 이행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자금 대출 경험자들이 졸업 후 단시간 내 첫 직장을 구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직기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일자리의 질은 무시한 채 일자리만 빨리 구했다고 하여 취업에 긍정적(또는 부정적) 효과를 준다고 단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첫 직장 취업성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의 하나로 첫 직장 임금수준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해 학자금 대출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앞선 분석에서 이용한 설명변수들과 동일한 구성을 통해 첫 직장 임금수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개인의 첫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월소득)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액수에 자연 로그를 취한 값( $\ln w_i$ )과 연관될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변수들( $X_i$ )과 함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학자금 대출 관련 변수( $Loan_i$ )를 함께 포함시켜 임금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Mincer의 임금방정식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n w_i = \alpha + \beta X_i + \gamma Loan_i + \epsilon_i$$

여기서도 앞선 첫 직장 이행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타의 조건을 통제 한 상태에서 학자금 대출 여부의 영향력을 살피기 위한 모형(=[모형 I]),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피기 위한 모형(=[모형 II]), 그리고 학자금 대출액에 따른 첫 직장의 임금수준에 대한 차이를 살피기 위한 모형(=[모형 III])으로 구성하였다.

첫 직장 임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세 모형에서 통제변수의 계수값의 크기나 방향,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의 순위가 높을수록 첫 직장의 임금수준이 높았으며 전공에 따라서는 기준변수인 공학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여타의 전공자들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계수값의 크기로 미루어보아 의약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사회계열 순으로 첫 직장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재학 중의 취업준비 경험과 관련해서는 재학 중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

우 첫 직장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첫 직장 임금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로그 첫 직장 임금)

변 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i>S.E</i>	$\beta$	<i>S.E</i>	$\beta$	<i>S.E</i>
상수항		4.665***	0.303	4.658***	0.300	4.668***	0.302
개인 및 가구 특성	부모학력(년)	-0.004	0.012	-0.002	0.012	-0.004	0.012
	형제자매 유무	0.080	0.112	0.084	0.111	0.088	0.112
	자가주택 소유	-0.021	0.059	-0.028	0.058	-0.026	0.059
	로그 가구소득	0.036	0.057	0.034	0.056	0.035	0.056
출신 고교 특성	고교소재지	0.038	0.069	0.047	0.069	0.041	0.069
	인문계 고교 출신	0.055	0.069	0.056	0.069	0.054	0.069
	재수경험 여부	-0.015	0.076	-0.018	0.076	-0.015	0.076
출신 대학 특성	대학순위: 1~10위	0.258**	0.112	0.263**	0.111	0.259**	0.111
	대학순위: 11~20위	0.145	0.103	0.158	0.103	0.147	0.103
	대학순위: 21~30위	0.004	0.082	0.008	0.082	0.004	0.082
	대학순위: 기타	-	-	-	-	-	-
	전공1: 인문	-0.321***	0.102	-0.324***	0.102	-0.322***	0.102
	전공2: 사회	-0.189**	0.090	-0.195**	0.090	-0.191**	0.090
	전공3: 교육	-0.143	0.124	-0.120	0.123	-0.141	0.124
	전공4: 자연	-0.178*	0.099	-0.179*	0.098	-0.176*	0.099
	전공5: 의약	-0.313**	0.145	-0.310**	0.144	-0.310**	0.144
전공6: 예체능	-0.241**	0.099	-0.244**	0.098	-0.237**	0.099	
전공7: 공학	-	-	-	-	-	-	
재학 중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경험	-0.074	0.050	-0.080	0.050	-0.073	0.050
	공무원 준비 경험	-0.036	0.069	-0.039	0.069	-0.038	0.069
	해외연수 경험	0.205***	0.067	0.202***	0.067	0.204***	0.067
	근로 경험	0.058	0.071	0.052	0.071	0.057	0.071
학자금 대출	대출 경험	-0.122**	0.052	-	-	-	-
	대출 받은 학기 수			-0.034***	0.011	-	-
	log(대출 총액)					-0.020***	0.007
F Value		2.04***		2.27***		2.14***	
$R^2$		0.1007		0.1110		0.1053	
<i>Adj. R</i> <sup>2</sup>		0.0513		0.0621		0.0561	
N		404		404		404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학자금 대출 경험 변수의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집단의 첫 직장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면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집단의 첫 직장 임금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2%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II]를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 기간 변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으로 나타나 학자금 대출 기간이 길수록 첫 직장의 임금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여타의 조건을 통제된 상태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기가 한 학기 증가하면 첫 직장의 임금수준은 평균적으로 3.4%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III]의 학자금 대출 총액 변수 또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으로 나타나 학자금 대출 총액이 많을수록 첫 직장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학자금 대출과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 분석

대학졸업 후 초기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에 따른 성과 차이와 관련해서 취업성과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잣대로 첫 일자리의 전공 일치도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과정에서는 전공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은 대졸 구직자가 축적한 인적자본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 이행 초기에 낮은 전공 일치도는 낮은 직장만족도, 잦은 이직(또는 높은 이직의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전공 간의 일치정도를 주관적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이 진행된 바 있다(이만기, 2013; 윤수경·한유경, 2014; 서화정·김병주,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전공 일치도를 주관적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하고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측정된 전공 일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앞서 실시한 분석에서와 동일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경험여부(=[모형 I]), 학자금 대출 기간(=[모형 II]), 그리고 학자금 대출 총액(=[모형 III])을 포함시킨 세 가지 모형을 통해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에 있어서 학자금 대출의 관련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표 5>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 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eta$	<i>S.E</i>	$\beta$	<i>S.E</i>	$\beta$	<i>S.E</i>
상수항		3.656***	0.694	3.581***	0.694	3.638***	0.694
개인 및 가구 특성	부모학력(년)	0.006	0.027	0.010	0.027	0.007	0.027
	형제자매 유무	0.231	0.256	0.215	0.256	0.239	0.256
	자가주택 소유	0.081	0.135	0.087	0.135	0.077	0.135
	로그 가구소득	-0.126	0.130	-0.122	0.130	-0.125	0.129
출신 고교 특성	고교소재지	0.285*	0.158	0.283*	0.158	0.286*	0.158
	인문계 고교 출신	0.282*	0.158	0.288*	0.159	0.280*	0.158
	재수경험 여부	-0.118	0.174	-0.119	0.175	-0.117	0.174
출신 대학 특성	대학순위: 1~10위	-0.365	0.256	-0.350	0.256	-0.360	0.256
	대학순위: 11~20위	0.155	0.237	0.158	0.238	0.153	0.236
	대학순위: 21~30위	0.127	0.189	0.140	0.189	0.129	0.189
	대학순위: 기타	-	-	-	-	-	-
	전공1: 인문	-0.641***	0.235	-0.643***	0.235	-0.644***	0.235
	전공2: 사회	-0.538***	0.207	-0.544***	0.208	-0.541***	0.207
	전공3: 교육	0.255	0.284	0.290	0.285	0.259	0.284
	전공4: 자연	-0.456**	0.227	-0.463**	0.227	-0.454**	0.227
	전공5: 의약	0.219	0.331	0.217	0.332	0.223	0.331
	전공6: 예체능	-0.097	0.226	-0.114	0.227	-0.094	0.226
전공7: 공학	-	-	-	-	-	-	
재학 중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경험	0.111	0.116	0.098	0.116	0.111	0.116
	공무원 준비 경험	-0.362**	0.158	-0.354**	0.159	-0.362**	0.158
	해외연수 경험	0.163	0.154	0.159	0.155	0.161	0.154
	근로 경험	-0.006	0.163	-0.017	0.163	-0.009	0.163
학자금 대출	대출 경험	-0.290**	0.120	-	-	-	-
	대출 받은 학기 수			-0.050**	0.025	-	-
	log(대출 총액)					-0.042**	0.017
F Value		2.47***		2.37***		2.47***	
$R^2$		0.1195		0.1153		0.1197	
<i>Adj. R</i> <sup>2</sup>		0.0711		0.0667		0.0713	
N		404		404		404	

주: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세 가지 모형에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나 부호,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모형 I]을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전공별로는 기준변수인 공학계열 전공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의 첫 직장 전공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자연계열 전공자들의 전공 일치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 경험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첫 직장 전공 일치도가 해당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학자금 대출 변수를 살펴보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이들의 첫 직장 전공 일치도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0.3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를 통해 살펴본 대출받은 기간에 따른 첫 직장 전공 일치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에서는 대출받은 기간(학기)이 길수록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변수에 있어 학자금 대출 총액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모형 III]에서도 학자금 대출총액 변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학자금 대출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는 낮았다.

## V. 결 론

우리사회에서 고등교육이 이미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비용은 여전히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출이 과거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진학을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판단해서인지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단계에 대한 정부지출의 형태에 있어서도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보다는 주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 형태로 정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2000년대 이후 높은 등록금 인상률로 인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공론화되면서 고등교육단계에서 필요한 학자금 조달과 관련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인 학자금 대출

과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학문적 영역에서의 연구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감에 비해서도 그 연구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있는 통계자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실태를 살펴봄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성과차이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성과차이를 살펴보고자 학자금 대출 경험여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간(학기) 그리고 학자금 대출 총액에 따라서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 첫 직장 임금 수준,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의 34.6%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1.3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로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면 이들은 평균 3.83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자금 대출의 평균 액수는 1,293만원에 달했다.

대학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첫 직장을 빠르게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기간이 길수록, 학자금 대출 총액이 많을수록 빨리 첫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첫 직장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잣대 중 하나인 임금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집단의 첫 직장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기간이 길수록, 학자금 대출 총액이 많을수록 첫 직장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직장의 질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로 살펴본 첫 직장의 전공 일치도에 있어서도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집단의 전공 일치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기간이 길수록, 학자금 대출 총액이 많을수록 전공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

앞선 분석결과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이들은 졸업 후 상대적으로 빨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진입한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이들이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은 직장 탐색기간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저임금의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할수록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서 취업으로 빨리 이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임금 수준이 낮은 곳으로 취업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 이필남·김경년(2012)의 지적과 같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직면하는 신용제약을 완화하여 고등교육 이수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노동시장으로 이행 초기에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므로 수직적 형평성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각종 학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재학 중 신용제약을 완화시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는 장학금보다는 주로 학자금 대출의 형태로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상환부담에 일 자리의 질은 도외시한 채 조급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입사원 채용보다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로는 대출금 상환에 쫓긴 2차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장기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어 대출금 상환기준이나 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과 더불어 취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상환 가능성 제고 방안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이 주로 성인기 초기에 이루어지는 만큼 재무계획 또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학 중의 학자금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이 졸업 무렵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위한 재무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영향을 대표성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뿐만 아니라 대출을 경험한 기간, 대출액수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으며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 관련해서도 이행 기간, 임금수준 등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 이어 연구의 한계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관, 대출금의 용처 등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정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살필 수 있고 이를 통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에도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연

구방법으로 이용한 생존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가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 이행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록 실험설계까지는 어려울 것이나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무작위 배정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두고 있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이나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등의 방법이나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동태적 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면 학자금 대출과 노동시장 이행성과 간의 인과성을 보다 명확히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의 일반화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군복무로 인해 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남학생들은 분석에서는 제외시켰으나 좀 더 오랜 기간 자료가 축적된 후 남학생들까지도 포함시킨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일반화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제 임금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의중임금의 차이, 학자금 대출 및 의중임금과 연계된 취업결정까지도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학자금 대출과 취업을 둘러싼 의사결정 매커니즘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2014.9.9.)」.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김안나·김성훈(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지원의 영향: 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제41권 제2호, 163~180쪽,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 김영식·주현준·김경선(2012).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종합연구』, 제10권 제4호, 225~249쪽. 교육종합연구소.
- 김용성(2012). 「고학력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일자리 탐색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34권 제3호, 67~94쪽, 한국개발연구원.
- 김재희(2016). 『R을 이용한 생존분석 기초』, 자유아카데미.
- 서화정·김병주(2014). 「교육만족도, 교육성취 및 취업지원 참여도, 직무일치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3권 제4호, 185~205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양정승·채창균·이찬영·임건주(2013). 『학자금 대출과 대학생의 취업준비 성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수경·한유경(2014). 「대학생의 취업성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3권 제4호, 131~160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이만기(2013).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61~81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찬영(2014). 「4년제 남자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과 노동시장 초기 성과: 성향점수매칭법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85~108쪽, 한국경제통상학회.
- 이필남·김경년(20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87~115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조우현·황수경(2016). 『새로운 노동경제학』, 법문사.
- 중앙일보 대학평가(2016). (<http://univ.joongang.co.kr/university/totalRankingReport.as>)

p?yearCode=2005에서 2016.12.20. 인출.)

한국교육개발원(2014). 『OECD 교육지표 2014』,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장학재단(2015), 학자금 대출 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3](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53) 에서 2016.4.4. 인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KEEP 소개([http://www.krivet.re.kr/ku/ha/prg\\_kuFAADs.jsp](http://www.krivet.re.kr/ku/ha/prg_kuFAADs.jsp) 에서 2016.11.2. 인출.)

Field, E. (2009). “Educational Debt Burden and Career Choice: Evidence from a Financial Aid Experiment at NYU Law School”,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1 No.1, pp. 1~21.

Minicozzi, A. (2005). “The short term effect of educational debt on job decision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24 No.4, pp. 417~430.

Rothstein, J. and Rouse, C. E. (2011). “Constrained after college: Student loans and early-career occupational choic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95 No.1~2, pp. 149~163.

Trow, M. (1974).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education, Conference on Future Structures of Post-Secondary Education”,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pp. 51~101, Paris: OECD.

Woodworth, P. A., Chang, F. C. & Helmer, S. D. (2001). “Debt and other influences on career choices among surgical and primary care residents in a community-based hospital system”,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Vol.180 No.6, pp. 570~575.

## Abstract

---

### Effects of Student Loan on School-to-Work Transition: Focusing on Female University Graduates

Ho Joong Bae  
Geon Pyo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ssess the effects of student loan that many students receive while they are in college and to give a reference for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n student loan later.

For this purpose, the representative statistical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ere used to perform empirical analysis of student loan status and the effects of student loan on school-to-work transition for female university graduates.

The results showed that 34.6% of the female university graduates received student loan for 1.3 terms on average. According to students who responded that they had received student loan, they had student loan for 3.83 terms and the loan amounted to 12.93 million won on average. As for the effects of student loan, the student loan recipients were quick to get the first job after graduation but their wage at the first job and the job's agreement with their major were at relatively lower level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n the scarcity of academic research, it made multilater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student loan on school-to-work transition, considering the political disputes over student loan and the relevant burden felt by the people.

**Key words** : student loan, wage at the first job, school-to-work transition,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